

시각특수효과의 드라마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 -〈태양의 후예〉, 〈미스터션샤인〉을 중심으로-

정태섭
청운대학교 융합기술경영학부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Visual Special Effects to TV Dramas; Focus on <Descendants of the Sun>, <Mr. Sunshine>

Tae-Sub Chung

School of Integrate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Chungwoon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TV 드라마에서 사용되는 시각특수효과 재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은 <태양의 후예>와 <미스터션샤인>을 통해 시각특수효과로 재현된 이미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서 시대에 따른 TV 드라마 제작방식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이에 따른 시장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 드라마의 시각특수효과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시각특수효과의 완성도에 따른 표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의 분석을 위하여 재현의 이미지와 이를 통한 리얼리티에 따른 몰입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태양의 후예>의 경우에는 시대적 배경이 현실이면서도 연기자의 안전과 표현의 극대화를 위해서 시각특수효과가 사용되었으며, <미스터션샤인>의 경우에는 시대적 배경의 미장센의 극대화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영상의 수출에 따른 PPL의 효과를 위하여 시각특수효과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리얼리티의 강조와 이미지 몽타주의 기법을 사용하여 하이퍼리얼리티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기술적 한계보다는 TV 드라마의 미장센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리얼리즘의 추구는 디지털을 이용한 시대적인 변화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는 배경과 일치하는 카메라의 각도와 조명, 원근법에 따른 적극적인 표현이다. 현실적인 표현을 위한 영상제작의 환경이 절실하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시각적 방향과 적용을 알아보았다. TV 영상에서 합성으로 자연스러운 시대적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재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후속연구로서 지금 영상의 표현을 바탕으로 새로운 4차 이미지의 변화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will explore the reenactment of visual special effects used in TV dramas.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images that are reproduced in visual special effects through <Descendants of the Sun> and <Mr. Sunshine>. Accordingly, we looked at the changes in the way TV dramas were produced according to the times, and looked at the changes in the market. Also, we looked at cases of visual special effects of Korean dramas, and looked at expressions according to the degree of completion of visual special effects. For the purpose of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targets, the images of reproducibility and the flow through reality were analyzed. In the case of <Descendants of the Sun>, the period setting is realistic, but visual special effects were used to maximize the actor's safety and expression, and in the case of <Mr. Sunshine>, the visual effects were used to maximize the aesthetic of the period background.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the visual special effects were used for the effect of PPL on the export of images. This shows that the emphasis of reality and image montage techniques are being used to pursue hyperrealism. It is now possible to actively express and use the beauty of TV dramas rather than technical limitations. In addition, the pursuit of realism can actively express the changing times of digital age. This is an active representation of the camera's angle, lighting, and perspective that coincides with the background. The environment of video production is crucial for realistic expressions. The study examined various visual directions and applications. In TV images, we looked at reproduction, which can make a natural period of time by combining. As a follow-up study, we are going to study the changes in the new quadratic image based on the present image representation.

Keywords : Visual Special Effects, TV Drama, Descendants of The Sun, Mr. Sunshine, Reenact

본 연구는 2016년도 청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Tae-Sub Chung(Chungwoon Univ.)

Tel: +82-41-630-3266 email: ggam98@chungwoon.ac.kr

Received December 13, 2018

Revised January 15, 2019

Accepted March 8, 2019

Published March 31, 2019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배경

연간 제작되는 TV 드라마에서 시각특수효과가 사용되고, 적용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특히 현대와 시대극의 구분이 없이 세트와 로케이션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그 당시 모습을 재현하기 위하여 시각특수효과와 CG(Computer Graphics)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 콘텐츠 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1] 드라마 시장의 확대에 따른 제작사들이 드라마제작의 편수를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 87편의 제작에서 2017년 109편을 제작하였다.

이에 드라마 제작방식을 본 연구에서는 사전제작, 반사전제작, 전통적 사전제작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드라마의 완성도가 높은 측면인 시각 특수효과의 사용을 재현의 의미로 논하고자 한다.

1.1.2 연구목적과 방법

본 연구를 통해서 최근 국제 드라마제작에 시장의 수익구조와 제작 시스템을 통해, 드라마제작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문제와 국제적 한류에 따른 완성도의 문제인 시각 특수효과에 대하여 고찰한다.

연구방법은 <태양의 후예>와 <미스터션샤인>의 시각특수효과 장면에서의 재현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검토

2.1 방송 드라마 제작방식의 변화

한국에서는 방송 드라마의 제작은 방송 초창기부터 1990년도까지는 방송사 자체제작을 원칙으로 하였다.

연도별 구분을 보면 초창기(방송시작부터 ~ 1990년도), 외주제작(1991년~2000년도), 종합편성제작(2000년도~현재)로 구분할 수 있다. [2]

이를 통해 현재의 외주 제작방식은 기획단계→ 편성확정→ 제작 및 방송→ 국내의 2차 활용의 단계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기획단계→ 마케팅 및 협상→ 방송→ 국내의 2차 활용의 단계이다. [3]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기획단계는 기본적인 단계로 같지만, 마케팅 및 협상과

편성확정이라는 차이점을 볼 수 있다. 또한, 다음 단계에서 차이점을 보이면서 제작 및 방송의 단계와 방송의 단계에 차이점을 볼 수 있다.

물론 외국도 모든 TV 시리즈물이 사전제작으로 방영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제작과 방영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송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외국의 경우에는 사전제작이 아니라도 계획에 의한 납품의 날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에는 ‘반사전제작’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의 사전제작은 MBC <조선여형사 다모>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조선여형사 다모>의 경우에는 ‘사전제작’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2년간 기획과 제작으로 인해 종영 전까지 촬영과 편집을 했을 정도이다.

드라마를 ‘사전제작’할 수 없는 이유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제작사에서 제작을 위한 제작미 투입이 어렵다. 이는 방송국에서 일정 부분 제작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시청자들의 반응이다. 드라마의 줄거리진개를 시청자의 반응을 통해 전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확신이다. 방송국에서 방영되는 과정에서 광고수익 및 PPL을 통한 제작비의 일정 부분을 충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를 통해 드라마의 ‘사전제작’을 꺼리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생긴 것이 ‘반사전제작제’이다. 반사전제작은 기획단계와 편성이 결정되면, 제작사는 방영할 드라마의 4회 정도를 먼저 제작을 하고 상영을 하게 된다.

2.2 방송 드라마의 시장 변화

이효진(2017)은 드라마 시장의 성장성이 크다고 보았다. [4] 특히 국내 드라마제작 수요의 증가와 VOD(Video On Demand) 시장의 성장 및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매출의 증가로 보았다.

하지만 중국은 본국에서 상영되는 모든 영상물의 상영에 있어서 2010년부터 검열제도를 1비2심제로 바꾸었다. 이는 대본이나 시나리오의 검열과 국가 최종검열을 거쳐야 상영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다. 한류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의 제도에 맞추어 한국의 드라마제작도 사전제작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디지털 스마트 TV의 등장은 VOD 시장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를 통해 유료 시청자들의 수가 급증했음을 볼 수 있다. 채널의 수가 급증을 하고, 예능 채널로

인식된 ‘TVN’의 드라마 제작도 드라마가 콘텐츠산업으로 발전할 기회가 되었다.

VOD 시장의 변화는 아래 그림과 같은 증가세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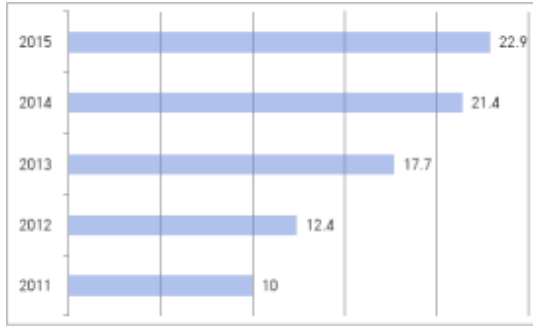


Fig. 1. VOD Sales Ratio [4]

이는 지적 재산권의 증가와 새로운 수입원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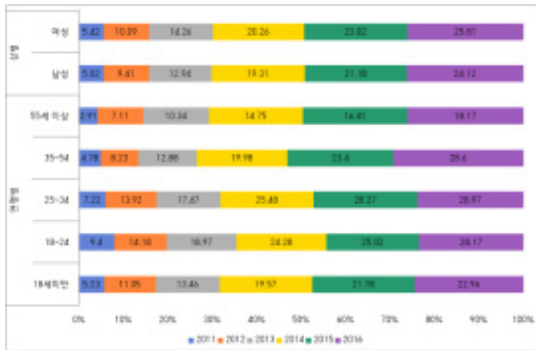


Fig. 2. VOD User ratio[4]

이용자 비율로 봤을 경우 2016년에 이용자가 급증했으며, 사용 연령층은 25세부터 54세가 가장 많은 이용을 하였음을 볼 수 있다. [4] 스마트 기기 사용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스마트 기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연령층에서 많은 증가세를 보인다.

드라마의 콘텐츠 확대는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제작에 있어서 후진국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양성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제작방식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도 방송사의 제작비 지원 및 연출자의 지원을 통해 드라마제작에 많은 관여를 하고 있다.

2.3 한국 드라마의 시각 특수효과

한국 TV 드라마에서 시각 특수효과(이하 CG)를 사용하게 됨으로서 조금 더 많은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영화에서 사용하던 것이 TV 미니시리즈 ‘M’(1994, MBC)에서 사용하면서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되었다.

하지만 ‘M’의 경우에는 시각 특수효과와 다양성보다는 눈동자의 색의 변화와 특수분장을 사용하여 공포의 효과를 극대화한 정도이다. 이는 영화제작기관과 드라마 제작 기간의 차이에서 오는 완성도의 문제이다.

하지만 <태왕사신기(2007, MBC)>의 CG는 영화에서 사용하는 시각 특수효과 방식을 사용하여 제작하게 됨으로서 많은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Fig. 3. <Legend> CG[5]

이후 많은 드라마에서 시각 특수효과를 이용하여 후반작업을 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드라마<태양의 후예>와 <미스터 션샤인>에서 사용된 시각 특수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 완성도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3. 분석

본 연구에 있어서 드라마<태양의 후예> 와 <미스터 션샤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두 작품에 적용된 시각 특수효과와 재현된 이미지 사용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재현은 새로운 이미지의 창출이 아닌, 기존의 공간과 이미지를 합쳐 새로운 ‘공간의 재창출’, ‘이미지의 재창출’로 의미를 둔다면, ‘현실 속의 공간 두 개를 이어 붙인다면 과연 그것은 논 할 수 없는 그림일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진중권은 이미지의 합성을 ‘상보적 상생 관계’ 라는 말에 대해 동조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

디지털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를 기술의 창안과 개발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현실성 있는 환경과 새로운 공간 창출 의미가 아니라 각각의 다른 개체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만들 수 있다. 시각 특수효과는 이미지의 분해, 조합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의 창조로 볼 수 있다.[7]

심해린은 시각 특수효과를 적용한 이미지에 대하여 랜델 파커(Randell Packer)와 켄 조던(Ken Jordan)의 디지털 매체 예술에 대한 특징을 적용하여 통합, 상호작용성, 리얼리티, 몰입, 서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8]

디지털 이미지의 생성을 통해 이미지의 파편들을 단순한 조합이 아닌 역할이 담긴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태양의 후예>와 <미스터션샤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기준은 <태양의 후예>는 현대물로 사전제작을 하였으며, <미스터션샤인>은 근현대사의 일제강점기의 시작되는 시기를 표현하는 드라마이며, 같은 작가가 참여한 드라마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미스터션샤인>으로 표기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표현된 것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3.1 연구대상분석

3.1.1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는 사전제작의 좋은 선례를 남긴 작품이다. 원작은 ‘국경없는 의사회’라는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의 우상을 받은 작품으로, 이 원작에 김은숙이 멜로를 강화하고 의사인 주인공을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장교로 변경하는 아이디어를 내며 김원석과 김은숙은 대본을 공동집필 했다. [9]

완전 사전제작으로 2015년 6월 12일~ 2015년 12월 30일까지 촬영을 하였고, 방영은 KBS 2TV에서 2016년 2월 24일~4월 14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방영되었다. 이는 중국시장을 겨냥한 작품으로 중국에서의 상영은 사전검열제도의 통과를 위하여 사전으로 제작이 되었다.

또한, 중국의 사전검열을 통과하고 한국과의 동시상

영을 위해 한국에서의 방영 일자가 3주 후로 조정이 되기도 하였다. <태양의 후예>가 방영되면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으며, 최종 40%(수도권 시청률)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였다.

총 16부작으로 제작이 되었으며, 엄청난 인기로 3회 특집 편이 추가로 방영되기도 하였다.

3.1.2.미스터션샤인

지상파 방송이 아닌 ‘TVN’에서 2018년 7월 7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방영되었다. <미스터션샤인>은 완전 사전제작이 아니지만, 구한말의 모습을 위하여 일 년 전부터 촬영에 들어갔기 때문에 반 사전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방영되는 7월 이전에 대본 최종화가 나왔으며, 충분히 방영에 문제없이 작품을 끝낼 수 있었다.

<미스터션샤인>은 원래 지상파 방송인 SBS에서 방송하기로 하였으나, 제작비의 부담으로 포기하고 ‘TVN’에서 제작하기로 최종결정하였다.

이 드라마는 일반 드라마와 달리 16:9 방식의 화면비율이 아닌, 영화의 화면비율인 21:9를 사용하여 화면의 아래위가 래터박스라고 불리는 블랙으로 처리가 되었다. 총 24화로 제작이 되었으며, 전 세계적인 배급경로인 ‘Netflix’를 통해 동시 방영이 되었다.

3.2 시각 특수효과

드라마에서 시각 특수효과의 발전은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통 역사 재연을 위한 사극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태왕사신기’의 경우에는 영화제작에서 전문적으로 시각 특수효과 전문회사에 의뢰하여, 지금까지 드라마에서 볼 수 없는 영상들을 만들어 내었다.

드라마의 시각 특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시대적 재현이다. 시대적 상황을 지금 다시 구성한다는 것은 세트를 만든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특히 예전의 모습을 ‘테마파크’ 형태로 만들 수 있지만, 촬영에 필요한 것으로 구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화면에 필요한 영상을 위한 의미 구연이다. 해외 현지 촬영 및 상황에 맞는 이미지를 위한 다양한 의미를 이미지로 구연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안전상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높은 산이나

폭풍이 치는 바다의 모습이 담긴 드라마의 경우에는 모든 스태프와 배우들의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각 특수효과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사실적인 표현을 위한 이미지인 재현된 가상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각특수효과가 사용되고 있다. 위의 3가지 조건을 위하여 사용되는 이미지가 기술발전의 시대에는 기술과 이미지의 미장센을 위하여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시각 특수효과는 TV보다는 영화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제작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드라마에서는 카메라의 특수기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제작 기간이 긴 영화에서는 다양한 시각 특수효과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3.2.1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는 시각특수효과가 과거의 이미지가 아닌 현재의 이미지로 상황을 만들어 리얼리티를 만들었다.



Fig. 4. Images with special effects before and after filming

적용된 이미지는 일반적인 세트를 촬영하고 난 후 드라마의 상황에 맞추어 만들어진 새로운 이미지이다.



Fig. 5. Image created by dropping similar objects

특히 배우의 안전을 위하여 자동차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장면은 비슷한 물체를 만들어 떨어뜨려 놓고, 그 영상에 자동차를 합성하여 안전한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실제 자동차를 떨어뜨려 촬영하는 것은 시간상의 문

제와 NG 영상의 경우 같은 차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시각 특수효과로 만들 수 있다.

보통 배경을 만들어 합성한다면, 이는 비슷한 물체를 이용해 자동차의 움직임과 동선을 만들어 3D로 만든 자동차를 그 위치에 넣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



Fig. 6. Synthetic PPL used in Chinese television

Fig6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방영되었을 때는 PPL이 사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 방영에서는 PPL이 필요했다. 하지만 사전제작 방식에 의해 PPL의 추가는 힘든 일 되었다. 이에 제작진은 중국 방영할 때에는 PPL 제품의 이미지를 합성하여 방영하였다.

이미 촬영된 원본에 방영되는 국가에 맞추어 PPL을 사용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각 국가에 판매할 경우 맞춤형 판매가 가능해지며, 영상의 판매가격이 이로 인해 급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3.2.2 미스터션샤인




<미스터션샤인>의 경우에는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재현의 시각특수효과가 많이 사용되었다.

<Table 3> 안의 이미지들을 보면 재현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상해항’에 내린 배우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하여 미장센 요소로 ‘상해(上海)’라는 한문 현수막을 놓았으며, 원본 이미지에서 보듯 바닷가에 세트를 만들지 못해 세트장 배경에 블루스크린(Blue Screen)을 설치하여 뒤

의 화면을 제거하였고, 바다를 합성함으로써 ‘상해(上海)’라는 이미지를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대적 배경에 충실하기 위하여 기차역을 고증하여 제작하였다. 일제강점기 기차역을 세트로 만들기에는 근대화로 변화가 되었으며 기차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이동을 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Table 2. <Mr. Sun Shine> film version & TV version

film version	TV version
Reproducible image	
	
	
	
	

또한, 넓은 강에서 촬영해야 하지만, 시기상의 문제와 두 배우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잡기 위하여 대형 수조 세트를 이용하였다.

마지막 이미지의 경우에는 야외촬영을 할 수 있었으나, 깊은 산속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블루스크린 세트를 사용하였다. 이미지의 합성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새로 마련하게 되었다.

<미스터션샤인>은 재현의 이미지가 많이 사용되었다. 시대 표현을 위하여 실질적인 세트보다는 시각특수효과를 이용하는 세트를 제작하였다.

4. 결론

TV에서 사용된 시각특수효과를 알아보았다. 드라마

에서 시각특수효과의 사용은 재현의 이미지를 위주로 사용되었다.

이는 디지털을 이용한 미디어 리얼리즘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영상만이 아니라, 소재의 다양성을 전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산업은 패러다임의 양이 아닌 질로의 변화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는 잠재적인 디지털의 기술을 최대한 끌어내고 있으며, 미래영상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디지털 영상의 최대 이슈이자 과거부터의 디지털을 이용하는 모든 것은 극사실주의의 추구이다. 현실감 있는 이미지와 영상을 만들어 감정이 배제된 이미지로 제작하여 기계적인 이미지를 인간적인 의미로 전달하는 것이 컴퓨터그래픽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태양의 후예>의 경우에는 현재의 시점을 통해, 지금도 어딘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면을 재현하고자 하였다. 현실적인 공간인 가상의 공간에 가상의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표현과 다양한 이야기의 전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이다. 영상에서는 리얼리티의 강조와 상생을 위해서 이미지 몽타주의 의미로 디지털합성을 이용하여 화면구성이 변화될 수 있다.

이는 영상 화면구성변화의 가장 큰 중심에 있으며, 디지털을 이용한 리얼리즘의 시대는 더욱더 발전 가능할 것이다.

제1차 영상문화를 이미지의 몽타주 시대라고 본다면, 제2차 영상문화의 시대인 이미지 콜라주의 시대에서, 3차의 영상문화인 입체영상이나 몰입형 영상으로의 시대적 변화의 초석이 될 수 있으며, 4차의 영상문화인 몰입형 이미지를 통해서 영상 속의 공간 표현은 더욱더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스터션샤인>처럼 시대적 배경을 그리는 영상의 경우에는 시뮬라크라와 시뮬라시옹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누구도 그 상황을 알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문헌이나 자료를 통해 실제의 모습을 유추하는 것이며, 이를 기준으로 모든 미장센을 만들 수 있다.

실재에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는 인공의 모든 것, 즉 행위와 실제의 모든 것들이 더 실재처럼 보이게 된다. 현실의 미술작품들이 디지털화되는 순간 그 모든 미술작품의 순수한 아우라는 사라지고 데이터에 의한 기술복제의 시대로 변화게 된다.

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하여 만든 영상은 가상현실과

현실 사이의 존재론적인 중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디지털 이미지와 실사 이미지 사이에 존재하는 이성적 교합이 아닌 감성적 교합이 이루어진다. 몽타주식의 디지털 붙임이 아니라 디지털을 이용한 새로운 가상을 만들고 이 새로운 합성 이미지의 아우라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이미지와 이미지의 결합을 통해 보이는 영상은 감정의 전달과 감정의 이입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다. 도식과 시간보다는 이미지의 상상을 통해 그림을 그려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의 상상력은 시간을 담을 수 없으며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사실적으로 상상을 하면서 그리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들에게 현실감을 느끼게 하였을 것이다.

영상 이미지 합성은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야 한다. 이미지가 합성된다면 그 이미지의 기본적인 아우라는 무너지게 된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상의 모습과 진리의 의지로서 또 하나의 미술작품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다. 기술적 형상을 통해 새로운 상상력으로서의 발전은 디지털 가상으로 새롭게 생성되어야 한다.

디지털을 이용하여 이미지와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항상 리얼리즘의 추구이다.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 배경과 일치하는 각도와 조명, 원근에 의한 현실감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의 디지털은 리얼리즘을 추구하기는 하였지만, 디지털 자체의 기술적 한계로 인한 표현의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시청자들은 이질감을 느끼게 되었다.

지금의 디지털기술은 리얼리티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곳에 명확하게 사용하는 시대로 변화되었으며, 시대에 따른 변화된 이미지와 적용을 통해 마치 현실감 있는 실생활의 모습으로 보이게 하려고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시각적 방향과 적용을 알아보았다. TV 영상에서 합성으로 자연스러운 시대적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재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후속연구로서 지금 영상의 표현을 바탕으로 새로운 4차 이미지의 변화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References

- [1]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12333981>
- [2] Kwon, Hoyoung,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drama, pp.15~17 Communication Books, 2015
- [3] Ryu, Heongsik, Lee, Ikheui,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Risk Management System for the Production of Video Content, such as Dramas and Movies, p17,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uman Culture Arirang, 2013
- [4] Lee, Hyojin, Content industry (drama/movie) preference, NH Research Center, www.nhqv.com, 2017.8.31. DOI: <https://download.nhqv.com/CommFile/1000000011/35/1/IBSPPR20170830180040371.pdf>
- [5]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18525>
- [6] Design Cultural Laboratory, Design Culture Review 04, Chin, Jungkwon, Art in the Age of Digital Cloning, Ahn graphics, 2001, p.193~194
- [7] Chung, Taesub, A Case Study on the Image Decomposition and Reorganization of Visual Special Effects, Design Knowledge Journal, 2009, pp93~102
- [8] Shim, Hearyun, Aesthetics in the Age of cyberspace, Sallimbooks, 2006, p.130
- [9] <https://namu.wiki/w/%ED%83%9C%EC%96%91%EC%9D%98%20%ED%9B%84%EC%98%88>

정 태 섭(Tae-Sub Chung)

[정회원]



- 1999년 2월 : 홍익대학교 제품디자인 전공(미술학석사)
- 2005년 2월 : 동국대학교 영상제작 대학원 시각특수효과전공(박사수료)
- 2015년 2월 : 건국대학교 산업디자인 전공(디자인학박사)
- 2007년 3월 ~ 2016년 2월 : 청운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
- 2016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융합기술경영학부 교수

<관심분야>

제품디자인, CG재현, VR/AR, 화면분할